

Market Intelligence

- 1.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1
- 2. 주요 통계3
- 3. 최근 원화강세의 원인 및 향후 전망4

주요 동향

◇ 美 3분기 GDP 2.8% 성장, 예상(2.0%) 및 2분기(2.5%) 대비 상회

1

- 연말 쇼핑시즌대비 기업재고 증가가 GDP 성장에 0.8%p 기여, 주거용 건설 14.6%, 정부지출 0.2% 증가. 가계지출은 전분기 대비 1.5% 증가, 기업설비투자는 3.7% 감소(작년 3분기 이래 첫 감소)
- (Wells Fargo) 재고는 크게 증가했지만 소비수요는 크지 않아, 4분기 주문 및 생산은 감소할 전망

◇ ECB, 예상(동결)밖 기준금리 0.25%p 인하, 0.25%로 사상최저

- 디플레이션 위험 등 경기하락방지와 유로화강세가 원인
- ECB 예치금리 0% 유지. 초단기대출금리 0.75%(0.25%p↓)
- (ECB 드라기 총재) 통화정책 기조는 경기수용적일 것

◇ 中, 10월 제조업PMI 전월(51.1)대비 상승한 51.4, 18개월래 최고

- (中 발전연구센터) 제조업활동은 점진적 개선세이나, 신규주문 · 재고 · 구매가격 지수 등은 하락, 中기업은 여전히 미래전망에 다소 유보적임을 반영

◇ OPEC, 셰일가스로 인해 OPEC 석유에 대한 수요감소 전망

- (World Oil Outlook) 셰일가스 및 다른 대체 에너지 공급증가로 OPEC의 석유시장 점유율 향후 5년간 8%p 정도 하락 가능성. 특히 北美지역 산유량 향후 5년내 현재의 2배 이상 증가 전망
- 中, 印度 등 많은 인구의 빈곤 탈출로 석유수요는 지속 증가 전망

① 외환시장

- (원-달러, 원-엔) 원화는 ECB 기준금리 인하, 美 경제지표 호조 등에 따른 美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달러 및 엔화 대비 약세
- (엔-달러, 달러-유로) 美 달러화는 美 고용지표 개선 소식에 따른 양적완화 연내 축소 가능성 확대로 엔화와 유로화 대비 강세

구 분	'12년말	'13. 11. 1	'13. 11. 8	전주비
₩/US\$	1,070.6	1,060.7	1,064.9	4.2
₩/100¥	1,235.0	1,083.3	1,086.0	2.7
¥/US\$	86.75	97.91	98.06	0.15
US\$/€	1.3192	1.3553	1.3395	△0.0158

② 채권시장

- (韓 국채금리) 美 국채금리 상승과 외국인의 국채현물 및 선물 순매도 등으로 상승
- (美 국채금리) 美 고용지표*가 큰 폭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상승
*10월 비농업부문 고용 20.4만명 증가하며 예상치(12.0만명) 크게 상회

구 분 (%)	'12년말	'13. 11. 1	'13. 11. 8	전주비
한국 국고채(3년)	2.82	2.84	2.89	0.05
미국 국채(10년)	1.76	2.62	2.75	0.13

③ 주식시장

- (韓 KOSPI) 美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美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 및 외국인·기관 순매도 지속 등으로 크게 하락
[(11.1) 2,039.42 → (11.8) 1,984.87]
- (美 DJIA) 고용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감 확대로 상승
[(11.1) 15,615 → (11.8) 15,761]

① **수출입(10월)** :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7.3% 증가한 505.1억 달러, 수입은 5.1% 증가한 456.1억 달러, 무역수지는 49.0억 달러 흑자

- 미국·EU 등 선진국 경기회복 추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였으며, 월간수출 역대 최고치 경신
- 무선통신기기(33.1% ↑), 자동차(21.2% ↑), 반도체(15.2% ↑), 석유화학(7.4% ↑), 선박(7.0% ↑), 철강(1.5% ↓), 일반기계(7.2% ↓), LCD(14.5% ↓), 석유제품(16.0% ↓)

② **산업생산(9월)** : 서비스업에서 증가하였으나, 광공업·건설업 등에서 감소하며 전월대비 0.8% 감소, 전년동월 대비 1.0% 감소

-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2.1%, 전년동월 대비 3.6% 각각 감소
-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.7%로 전월에 비해 2.6%p 하락

③ **BDI지수** : 1,581으로 전주대비 56point 상승

- 중국의 철광석 수입이 일시 증가함에 따라 소폭 상승
- HRCI 지수는 2.5point 하락한 500.9을 기록

④ **유가** : 美 원유재고 증가 및 달러화 강세로 하락하였다가, 이란 핵협상 타결 가능성 및 美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하락폭 제한

(US\$ / 배럴)

유 종	11월 1일	11월 8일
WTI유 현물	94.48	94.51
Brent유 현물	106.67	104.67
두바이유 현물	105.85	102.43

□ 원-달러 환율 하반기 이후 강세 지속

- 원-달러 환율은 상반기중 1,161원까지 상승하였다가,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며 1,055원으로 하락후 정부개입 등으로 1,060원대 수준 유지
 - 원-엔환율은 6월중 1,197원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중 연중최저 수준인 1,078원 기록
- 하반기중 원-달러 환율 절상률은 7.6%을 기록하는 등 일본, 중국 및 다른 개도국 통화의 절상률을 크게 상회
 - 일본은 아베노믹스로 엔화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개도국의 경우 미국의 출구전략 가능성에 따른 자금유출로 약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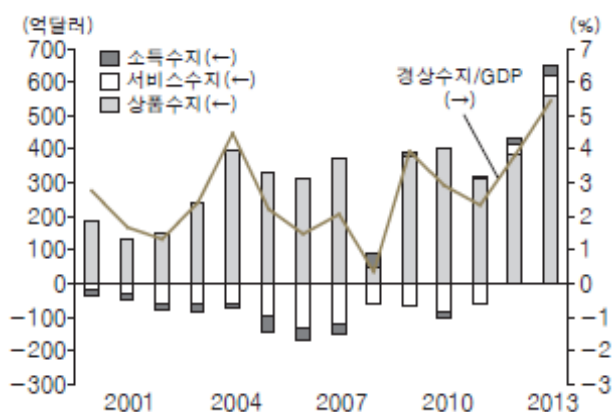
<한국 및 주요 경쟁국의 미달러화 대비 통화절상률>

	한국	일본	중국	싱가포르	태국	말레이시아	인도네시아
연초대비 절상률	0.8%	-13.8%	2.1%	-1.7%	-2.2%	-3.8%	-17.8%
7월 이후 절상률	7.6%	-0.1%	0.8%	2.0%	-0.4%	0.1%	-14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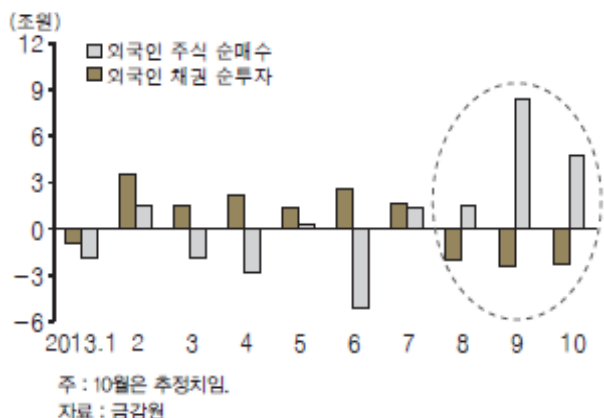
- 원화강세 원인 : 경상수지 흑자 지속,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 양호한 경제펀더멘털이 강세의 기본 요인
 - 경상수지 흑자 : 9월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488억달러로 '12년 연간 흑자규모인 431억달러를 넘어섰고, '13년 연간 6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

- **풍부한 외환보유고** : 10월말 현재 외환보유고는 3,432억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**세계 7위 규모**
 - 현재 수준의 외환보유고는 단기외채(1,196억달러, 2013년 2분기말 기준)의 약 3배 수준으로 IMF도 추가적인 외환보유고는 불필요하다고 평가
- **외국인 주식순매수 증가** : 7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15조원 수준임
 - ※ 외국인 주식순매수 추이 : 1조 3천억원(7월) → 1조 5천억원(8월) → 8조 3천억원(9월) → 5조 7천억원(10월)
 - 하반기중 미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확대되며 대외부문이 부실한 개도국(인도, 터키, 인도네시아 등)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확대되며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건실한 국내로 투자자금 유입이 급증
- **미연준의 양적완화 정책 지속** : 금년 9월중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미연준의 양적완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**미달러화 약세**
 - ※ 유로-달러 환율 추이(월평균) : 1.31(7월) → 1.33(8월) → 1.33(9월) → 1.36(10월)

<한국 경상수지 추이>



<외국인 주식 및 채권 투자현황>



□ **향후 전망 : 하락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책당국의 의지에 의해 단기적 환율수준이 결정될 전망**

○ **원화강세 요인 지속 : 양호한 수출 전망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됨에 따라 원화환율의 하락 압력은 유지될 전망**

- **수출 전망 :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유지됨에 따라 수출은 안정적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**

※ 수출증가율 전망(한은) : 2.8%(2013년) → 7.7%(2014년)

- **경상수지 전망 : 수출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유가 등 원자재 가격도 하향안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지속될 전망**

※ 경상수지 전망(한은) : 630억달러(2013년) → 450억달러(2014년)

○ **정책당국의 환율안정 의지 : 최근 정부는 원-달러 환율을 1,050원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**

- **정부는 원-달러 환율이 1,050원을 하회하자 강력한 구두개입과 함께 10~20억달러 규모의 시장개입 실시(10.24)**

- 그러나 미국은 원화가 아직 저평가 상태로 평가, 한국정부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*하고 있어 정부개입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

* 미재무부, "Report to Congress on International Economic and Exchange Rate Policies('10.30)

○ **원-달러 환율은 내년 상반기중 1,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('13.10월말 현재 '13년 원-달러 평균환율 : 1,102.12)**

- 상반기까지 원화강세 요인이 지속되며 하락이 예상되나, 하반기 이후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미달러화 강세로 소폭 상승 전망

□ 원화강세의 영향 : 수출물량보다는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전망

- 원화환율 10% 절상시 수출 5% 감소 전망(LG경제연구원)
 - 주력 수출산업인 전기전자, 자동차, 기계류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하지만(수출감소율 3% 수준), 섬유 및 철강금속 산업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(수출감소율 8% 수준)
- 기업 수익성 : 원-달러 환율 10% 상승시 영업이익률 0.99%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(삼성경제연구소)
 - 원-달러 환율 10% 상승시 원화기준 수출매출액은 약 547억달러 감소하며, 이는 제조업 매출액의 약 3% 수준('12년 기준)
 - 원화강세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는 최근 재무여건이 좋지 않은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 - 국내 상장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'13년에는 4.0% 수준에 불과
- ※ 영업이익률 추이 : 5.9%('10) → 5.0%('11) → 4.2%('12) → 4.0%('13)
- ※ 최근 엔화약세와 관련, 원-엔 환율 10% 하락시 수출이 약1.9%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(기재부)
- * 연초대비 원-엔환율 추이 : 1,236.05('13.1.2자) → 1,077.51('13.10.31)

□ 시사점

- 원화강세 지속시,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채산성 악화 및 재무여건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들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를 충족시키는 노력 필요
- 이와 더불어, 기업들은 원화강세 장기화에 대비해 품질·브랜드 등 비가격 제품경쟁력 강화에 힘쓸 필요